



함평군, 사정경로당서 의료봉사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달 29일 전남보건교 임직원 및 학생 20여 명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나산면이 추진하는 복지허브화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산면 소재 사정경로당 어르신 30여 명에게 뜬, 침, 온열마사지 등을 펼쳤다. 공무원들과 전남보건교등학교 학생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함평군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에 본격 발행

지역 활성화 일환... 4961억 규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1일 본격 발행됐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 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중 카드형. /경기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도시 새뜰마을사업’ 예산 138억 확보

전북도, 5개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는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도시 새뜰마을 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3개소, 2017년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국비 333억 원 등 48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봉재영 기자

도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시새뜰마을 사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성장 해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다시 추진됐다.

오늘의 날씨

4월 2일 (화)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2 ~ -12℃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17 | 해질 / 18:55

연천 -4/12, 동두천 -2/13, 가평 -4/11, 파주 -4/12, 서울 2/12, 양평 -2/13, 인천 3/10, 수원 2/10, 용인 2/10, 평택 -1/12

백령도 3/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자은도에 2200억 투입 2022년 관광·레저타운 조성

전남도-신안군-지오그룹, MOU 리조트·호텔·마리나시설 등 건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 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000㎡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오는 8월 8일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섬의 가치가 재조명되

고 있다”며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을 잘 가꾸어 내륙관광과 연계,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남교육청, 광양햇살학교 설립 추진

옛 옥룡중 부지에 2022년 3월 개교 장애학생에 사회통합 맞춤형 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광양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전남교육청은 광양시 옥룡면 옥동마을 소재 폐교인 옛 광양옥룡중학교 부지에 특수학교인 (가칭)광양햇살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지난 1월 주민대표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모임, 2월 주민대표와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주민대표간담회 이어 3월 주민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옥동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참석 주민 모두의 열렬한 박수 속에 개최됐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주민 동의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설립 추진



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정해자 혁신교육과장이 가칭 광양햇살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주민의견 수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설립 내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광양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양햇살학교 설립은 광양지역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인근 특수학교(순천선혜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남=봉재영 기자

인천시, 5.4억 투입 농가 택배비 지원

인터넷 직거래장터 18만건 대상

인천시가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 판매에 도움을 주고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억 4000만원을 확보해 인천지역에서 신선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18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쌀, 순무, 고구마, 약쑥, 인삼 등의 직거래시 택배비 및 도선료(해상운송료)를 일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8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 바 있다.

한편, 택배기관(우체국)·해상운송업체(지역 선사)에서 직거래 증빙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급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하며, 건당 5천원 미만일 경우 건별 실제 지급 금액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성격상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나 직거래 방식이 아닌 중간유통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